

S#1. 세탁소 안 / 낮

낡은 형광등이 깜빡인다. 다림질대 위에 김이 오른다.
오십 대 여자 정순이 다리미를 들고 셔츠를 편다.

정순
(혼잣말)
또 늦네.

문이 열린다. 스무 살 남자 태욱이 배낭을 메고 들어온다.
어깨에 비를 맞았다.

태욱
누나, 우산 좀.

정순은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노란 우산을 꺼내 건넨다.

S#2. 세탁소 앞 골목 / 낮

좁은 골목에 빗물이 고여 있다. 담벼락에 물때가 올라 있다.
태욱이 노란 우산을 펴고 골목을 빠져나간다.

정순은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본다.
손에는 다림질하던 셔츠가 그대로 들려 있다.

S#3. 세탁소 안 / 저녁

형광등이 하나 나가 있다. 정순이 사다리에 올라 형광등을 뺀다.
카운터 위에 태욱이 두고 간 학생증이 놓여 있다.

정순은 학생증을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다.